

류마티스 줄기세포로 코로나 폐렴 잡는다

강스템바이오텍-영남대병원



강스템바이오텍이 영남대학교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류마티스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시스템 RA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한다.

22일 강스템바이오텍은 최근 폐렴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인까지는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퓨어시스템 RA주' 사용승인 신청 식약처, 승인에 일주일가량 소요

중서 줄기세포 치료 등 14건 예시
코로나19 환자 치료가능성 제시
향후 류마티스 치료에 도움될 듯

'퓨어시스템 RA주'는 현재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류마티스 관절염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이다. 2014~2015년 단회 정맥투여로 진행된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했고, 2018년에는 4주간격으로 3회 정맥투여를 통해 안전성 및 내약성을 추가 평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임상 2a상(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을 진행 중에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기존 연구를 통해 '퓨어시스템 RA주'가 폐렴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의 분화와 활성을 제어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있음을 국제 저명 학술지인 '셀 데스 앤드 디지

(Cell Death and Disease)'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폭풍' 및 림프구감소증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인체가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정상 세포를 공격, 대규모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강스템바이오텍 이태화 대표는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스스로를 공격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기전"이라며 "퓨어시스템 RA이 중증도 환자들의 폐렴만 잡아주면 사망을 막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받은 환자들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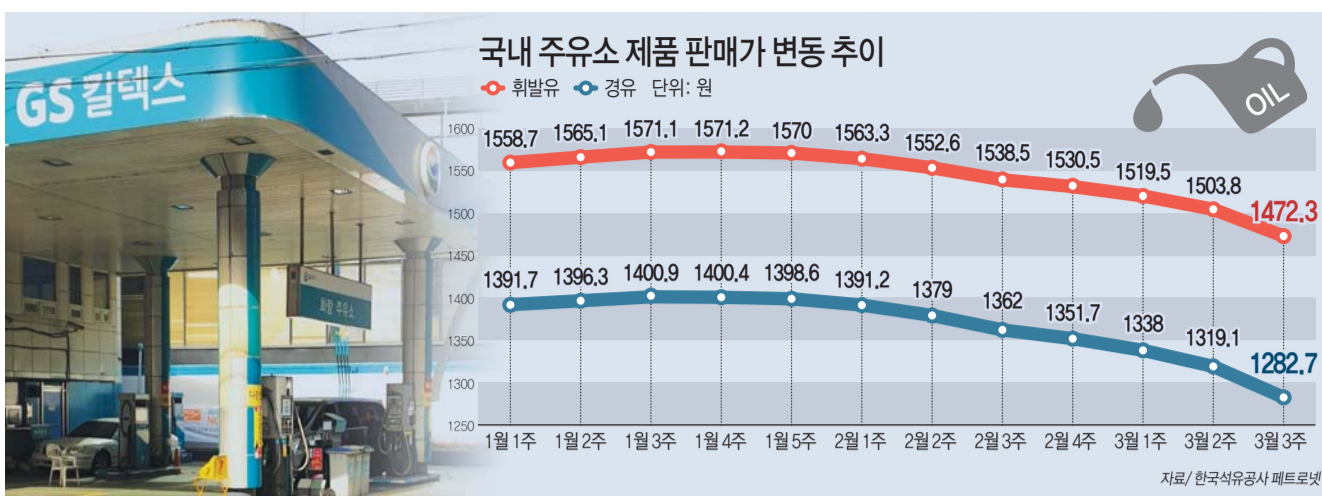
한국보다 먼저 감염자가 발생한 중국은 항바이러스 약물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에게 줄기세포 투여를 통해 병세가 회복되었음을 보고하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위의 케이스를 포함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줄기세포를 적용하는 사례가 1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으로 임상 데이터가 늘어나면, 향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환자 중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치료목적 사용승인"이라며 "이러한 감염병에 대해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상업적 임상시험도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코로나19에 석유전쟁까지 설상가상

“기름값 내렸는데도 손님이 별로 없어요”

8주째 유가하락 주유소 가보니

직원들, 대기실서 손님 기다리지만 운영주들 “손님 대폭 줄었다” 한탄

정유사, 유가하락세 올 1분기 반영 “재고관련 정제마진·손실 엄청날 것”

“가격은 내려갔지만 손님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30% 정도 줄었다. 벌써 들어오는 차량 댓수부터 다르다. 아마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보니 손님들이 줄은 것 같다.”

서울 성북구 지역 내 한 주유소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경제가 툭나바퀴와 같이 서로 물고 물리는 만큼, 결국 주유소에도 연쇄타격이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방문한 서울 중구 지역 내 한 주유소는 몇몇 자동차가 드나들었지만 꽤 한산했다. 한 근무자만 주유를 마치고 나가려는 손님의 앞 유리창을 닦고 있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대기실에서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 산업분야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유시장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모습이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우려해 모임을 최소화하고 일부 기업은 재택근무에 돌입하는 등 전 사

회적 움직임이 감소했기 때문. 그만큼 주유를 필요로 하는 수요도 줄어든 것이다.

수요가 줄어든지 자연스레 휘발유, 경유 등 정유의 판매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기준 휘발유의 국내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리터(L)당 31.6원 하락한 1472.3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전주 대비 36.4원 내린 1282.7원/L을 나타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8주 이상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3월 둘째 주까지 각각 1500원대, 1300원대를 견고히 유지하던 휘발유와 경유는 급기야 1400원, 12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 이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전쟁'까지 겹쳤다는 데 있다. 양국은 감산 합의에 실패하며 가격 인하와 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제유가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 때 배럴당 24.4%폭락하며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마주했던 주유소 운영주들은 전부 손님이 대폭 줄었다며 한 목소리로 한탄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확실하다는 것이다.

성북구 지역 내 한 주유소 운영주는 “손님들은 가격이 낮아지니 싸게 살 수

있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외려 요즘에 손님이 30~40% 줄었다”며 “원인은 복합적인 것 같다. 국제유가 변동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겹쳐서 (어떤 요인에 따른 것인지) 구분은 잘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동도 없고 아무도 집에서 안 나오니 그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들도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지다. 코로나19와 석유전쟁 등에 따른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올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 정유사는 이전에 보유하던 재고를 구매 당시 가격보다 적은 돈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이에 정유사는 매 분기마다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기에 한해서는 유가가 굉장히 급락해 40~50달러 하던 게 20~30불 선으로 떨어지다보니 재고 관련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방식대로 하면 유가가 떨어지면 수요가 오르겠지만,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떨어져서 유가를 낮춘 것이기 때문에 정제마진도 안 좋고 단기적으로 평가 손실도 많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굉장한 쇼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600억 弗 통화스와프에도 회복 난항

>> 1면 '외사 ATM기...'서 계속

당분간 외국인의 투매와 달러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경제침체로 기업들이 달러 비축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시아에 투자한 자산을 가장 먼저 팔아치우고 있어서다.

한국과 미국이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하고, 채권·증시안정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안전판의 역할일 뿐 추세를 돌려놓기는 힘든 상황이다.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코로나19는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속에서 경기 침체와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진정 여부 확인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미국 내 부실 자산 신용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안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며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지난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에도 단기적으로 그 효과는 며칠에 그쳤으며, 달러 강세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달러·원 환율은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원화값 하락)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수출국으로서 원화 약세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금융센터 이민섭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는 신흥국 수출에 유리한 요인이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수요 위축이 결합된 만큼 수출 촉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일부국가 사무실선 귀국관련 ‘언급자제’ 요청도

>> 1면 '귀국시기 놓친...'서 계속

온두라스의 봉사자 A 씨는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히면서 육로로 니카라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귀국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공지 받았다”며 “비행기편을 확보하기 어려워 일단은 수도에 모여서 대기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 모른 채 마냥 기다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도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모든 상가 문을 닫고 24시간 통행금지를 명했다. 사무실에서는 식량확보가 안되니 음식을 알아서 챙겨오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온두라스 봉사자들은 지난 21일 미국 마이애미를 경유해, 22일 뉴욕에도 착했다. 이들은 미국을 거친 뒤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대처보다는 은폐?

코이카 측은 늦장 및 허술 대응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코이카 홍보담당자는 “유럽의 경우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봉사단원이 파견된 국가는 아프리카나 중동 등 개발도상국으로 코로나로부터 위험하지 않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쌌다. 그는 오히려 “어디서 일시 귀국 정보를 들었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냐”고 역으로 물었다.

일부 국가 사무실에서는 일시 귀국과 관련해 ‘언급(언급금지)’을 내렸다. 베트남에 파견 봉사를 나간 B 씨는 “19일에 ‘일시귀국 관련, SNS 및 카톡 등으로 일시귀국 내용 게시 및 외부 언급 자제 부탁한다. 봉사단원 일시 귀국으로 인한 교민사회 동요 및 수원기관 측에 부정적인 인식 최소화를 위해서’라는 전체 공지를 받았다”라며 “본인들도 걸리는 것이 있으니

언급 조치를 내린 것 같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귀국 후 어찌 해야 하나

일원화되지 않고 불확실한 공지에 봉사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입국이 시작된 현재는 봉사단원에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는 공지가 전달됐지만 18일까지 확실한 안내가 없었다.

자녀가 코이카 봉사단으로 간 C 씨는 “16일 일시 귀국한다는 통보만 받고, 코로나 관련해 어떤 검사를 받을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 귀국 후 일정 안내는 18일 본부에서 나온 안내문 한 장이 전부다. 자세하게 안내받았다고 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42개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코이카 봉사단원과 가족의 수는 1457명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